

고창 반암리서 '초기청자' 가마 확인

국내 청자 발생 변화과정 조명되나

벽돌가마 1기·진흙가마 3기·퇴적구릉 3개소 등
벽돌가마, 1호 진흙가마 아래에서 중첩돼 확인

고창군이 최근 고창군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초기 청자' 가마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문화재청의 2020년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을 통해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고창군 아산면에 자리한 계명산 줄기의 서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마터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유적의 훼손 방지와 성격규명, 보존관리 등을 위해 긴급발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벽돌가마(전축요, 塼築窯) 1기, 진흙가마(토축요, 土築窯) 3기, 퇴적구릉(폐기장) 3개소, 건물지 2동 등이 확인됐다.

특히 벽돌가마는 1호 진흙가마 아래에서 중첩돼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진안 도동리 중령 청자요지에서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진안 도동리 가마는 벽돌가마를 파괴한 후 그 위에 진흙가마를 축조한 반면, 반암리 가마는 벽돌가마 폐기후 퇴적층과 퇴적구릉(1.5m 내외)이 형성된 다음 진흙가마를 조성해 벽돌가마가 비교적 잘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바뀌어 간 양상이 잘 남아 있어 앞으로 '초기청자' 가마의 발생과 변화과정, 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시굴트렌치를 통해 확인된 1호가마는 길이 35~40m, 폭 1.2m 내외로 추정되어 전형적인 '초기 청자' 가마의 형태를 보여준다.

퇴적구릉은 다량의 청자편과 청자를 구울 때 쓰였던 갑발, 가마 축조재료인 벽돌 등이 2~3m 정도로 쌓여 있다. 건물지에서는 '밭', '밭' 명 등의 명문기와와 출토돼 반암리 청자요지의 성격과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일대는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사적 250호 고창 분청사기요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115호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요지 등 다수의 지정·비지정 가마유적이 분포하는 곳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가마와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반암리 청자요지는 10세기 후반경에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유적으로 판단된다.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돼 우리나라 청자 발생과 변화과정 및 성격과 운송시기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고창군은 반암리 청자요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과 함께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추가발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북도 기념물과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르령 실경 토틸이야' 무대.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 9년 연속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 선정

홍부전 대중친화적으로 풀어낸 '시르령 실경 토틸이야'
코로나19 여파로 시 TV 유튜브 채널 통해 비대면 공연 '호음'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1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돼 국·도비 1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남원시립국악단을 주축으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안숙선명창의 여정 등에서 춘향가, 흥부가, 정유재판 등 남원의 문화역사자원을 소재로 한 독특한 공연양식 개발 및 창작공연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해 남원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에는 흥부전을 해학과 재치 및 권선징악의 교훈 등 대중친화적인 공연요소로 풀

어낸 '시르령 실경 토틸이야'를 을 초 개관한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공연해 관객들에게 흥과 신명을 선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공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남원시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지역의 수려한 한옥경관을 활용해 펼쳐지는 공연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창작창극으로 제작하여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지역 내 우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열녀춘향 수절'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배경지인 남원에서 그 탄생의 배경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한다.

판소리 중시조인 운봉출신 가왕 송흥룡을 등장시켜 우연히 높은 기생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이에 크게 감흥하여 춘향가의 가사 및 소리를 완성해 나간다는 상상력으로 춘향 이야기를 풀어간다.

극중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기존 춘향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춘향가의 주요 눈대목인 사랑가, 이별가, 심정가, 상봉가, 어서출도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 판소리의 맥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18~21일 개최 '소태산영화제' 온·오프라인 병행

원광대학교(총장 박평수)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교내 프라임관에서 '2020 제4회 소태산영화제'를 개최한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와 원광대가 주최하고, 원불교사상연구원과 LINC+사업단이 주관하는 제4회 소태산영화제는 지난해 개최한 '2019 제3회 소태산영화제'의 맥을 이어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는 첨단영상 워크숍과 영화시사회, GV(관객과의 대화),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 등이 이루어지며, 온라인 기반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첨단영상 워크숍은 타지역을 연계하여 젊은 창작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상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창작 워크숍은 '물결선용과 정신개벽'의 이상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XR-AI 첨단 문명을 활용한 기획창작 프로세스를 도입했으며, 워크숍을 통해 선정되는 우수작품은 영화제 마지막 날인 1일 상영된다.

영화 시사회는 주제인 '생명'과 '소통'에 관련된 영화들로 구성된 가운데 참석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제'를 병행하는 맞

춤형 시사회도 준비했으며,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깊은 감동을 준 조은 감독의 '사당동 더하기 33'을 통해 우리 삶을 비집고 들어와 있는 가난의 본질을 사유해보고, 게임과 예술이 결합한 배상현 감독의 '체이싱 라이트(Chasing Light)'는 관람에 이어 현장에서 게임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 ▲헤로니모, ▲굿바이 마이 러브NK: 붉은 청춘, ▲언더독, ▲미안해요, 라기, ▲진도,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왜 나를 썼지?, ▲서바이벌 패밀리 등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화를 비롯해 ▲인성교육에 한 획을 긋다: 세태원 배운중 대령도 등 생명과 소통을 위해 끝은 삶을 살다간 원불교 교부의 삶을 다룬 영화도 준비했다.

한편,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종빈의 호인 '소태산'을 인용한 '소태산 영화제'는 2017년 첫 회를 시작으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지는 역할과 함께 각박해져 가는 이 시대를 향한 목소리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고 등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흑백으로 남겨진 100년전 미륵사지를 만나다'

국립익산박물관 테마전

일제강점기 문서에 드러난

미륵사지의 모습부터

100년전 일본인들이

바라본 모습까지 소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신상효)은 테마전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륵사지를 촬영한 100년 전 사진 전모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915년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수리시 쓰였던 석탑 보강철물(H빔)과 콘크리트 부재, 공사 도면 청사진(靑寫眞)도 최초 소개된다.

일제강점기 시작부터 광복 전까지 문화재 조사를 위해 익산을 찾은 일본인 학자들은 사진과 글로 미륵사지를 담았다. 이 기록은 당시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전시에 사용한 흑백사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필름이 나오기 전 촬영한 유리건판(Gelatin dry plate) 사진을 고화질로 스캔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인들이 유리건판으로 촬영한 전국의 우리 문화재 사진 38,170점을 소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을 촬영한 사진은 307점이 남아있는데 익산지역 사진 84점 중 미륵사지는 27점이 전해진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지난 4년간 일제강점기 익산지역 문화재 기록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2017년에는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했다. 제1부 '미륵사지, 세상에 드러나다'는 1910년 일본의 문화재 조사사업으로 동아시아 고대사원의 면모가 드러난 미륵사지의 첫 사진을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문서에 드러난 일본인 연구자들의 조사 내용과 평가 기록을 바탕으로 미륵사지가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본다. 제2부 '석탑, 시멘트로 보수하다'는 첫 조사

후 5년 뒤인 1915년 미륵사지 석탑을 응급 수리한 기록을 소개한다. 밑그림이 남아있는 설계도면의 청사진뿐만 아니라 미륵사지 석탑 수리 과정에서 사용된 보강철물(H빔)과 콘크리트 부재는 당시 일본 문화재 수리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부 '미륵사지, 가까이 보다'는 100년 전 일본인들이 바라본 미륵사지의 모습을 소개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3D VR 온라인 전시실', '미륵사지 다른 그림 찾기 게임' 등 다채로운 온라인 전시 콘텐츠를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집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향후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사진에 담긴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100년 전 미륵사지를 담았던 오래된 기억을 감상하고, 당시 문화재가 마주한 관리 혹은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모습 속 현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문성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